

격조사 ‘의’에 대한 이해와 영한 일반 번역 교육 —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

최경희* · 박경희**

(평택대 · 맥쿼리대)

1. 연구 배경

통번역 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과목 중 하나가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 특히 모국어 방향으로의 일반 번역이 아닌가 한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외국어 원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모국어로 표현하는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부담이 적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번역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모국어 실력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뿐 아니라 모국어 수준 유지 및 실력 향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최

* 제1저자

** 교신저자

정화 2004: 18).

모국어 실력 유지 및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다양한 내용 중에 격조사 ‘의’가 있는데, 격조사 ‘의’의 오용 사례나 남용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식 석상에서 성명과 소속을 밝힐 때, ‘○○○ 대학교의 아무개’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 대학교에 아무개’인지 또는 조사 없이 ‘○○○ 대학교, 아무개’라고 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음직하다. 또한 필자가 최근에 목격한 사례를 두 가지 들자면, 공중 화장실에 부착된 “휴지 외에 쓰레기는 양변기에 넣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구와, 출퇴근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역에 한 결혼상담센터가 게시한 “동반자의 선택으로 새 인생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광고문구가 그것이다. 여기서 ‘휴지 외에’는 ‘휴지 외의’로 바꾸어야 정확하고, ‘동반자의 선택으로’는 ‘동반자를 선택하여’로 바꾸어 쓰는 것이 우리말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각 격조사 ‘의’의 오용 사례와 남용 사례로 볼 수 있다.

번역 수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격조사 ‘의’의 용법에 대한 이해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영한 일반 번역교실에서의 오남용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학생 번역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과거의 교육의 초점은 학습능력의 저하 방지에 있었지만...
- 이번 노사분쟁은 호주의 산업관계 체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고도의 기술력과 고임금’의 높은 경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의 예는 모두 격조사 ‘의’를 중첩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이들 격조사 ‘의’ 중에서 일부는 필요하지만(예. ‘교육의 초점’에서 ‘의’, ‘고도의 기술력’에서 ‘의’), 일부는 생략해야만 하는 경우(예. ‘과거의’ -> ‘과거’)가 있고, 또한 그대로 둘 경우 이해가 불가하거나 어색하여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호주의 산업관계 체계의 시험대가 될 것’ -> ‘호주의 산업관계 체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 ‘고도의 기술력과 고임금’의 높은 경제수준 -> ‘고도의 기술력과 고임금으로 대표되는 높은 경제수준’). 이처럼 격조사 ‘의’는 짧은 한 자에 불과하지만 과급효과가 한 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한 문장 안에 ‘의’가

두 개 이상 중첩되어 나올 경우 전체 문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한 번역 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격조사 '의'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번역이나 번역 교육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룬 문헌이 있기는 하지만(예. 이희재 2009: 134, 김정우 2007: 70), 번역투 문장 등 대부분 여러 다양한 번역의 제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어, 격조사 '의'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영한 일반 번역 수업 시 나올 수 있는 격조사 '의'의 오남용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로는 일반 번역 텍스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뉴스 텍스트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일반 번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학번역이나 전문 번역 텍스트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석 대상 데이터는 대학원 2학기 영한 일반 번역 수업 시간에 출발어로 사용한 텍스트 10개 (텍스트 당 약 350 단어)와 본 텍스트를 재학생 7명이 과제로 제출한 70건의 도착어 텍스트이다).

본 논문에서 격조사 '의'에 대한 이해와 오남용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연구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 1) 국어 격조사 '의'의 쓰임새는 어떤 것인가?
- 2) 격조사 '의'를 오남용하게 된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이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격조사 '의'의 사용, 즉 격조사 '의'의 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 생산 시 격조사 '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질문은 영어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연관시켜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격조사 '의'의 오남용 원인을 출발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의'의 용법에 대한 세부사

1) 이외에도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료에서 나온 예문들과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의 예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항은 하기 ‘2.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 관점: 격조사 ‘의’의 쓰임’ 참조, 그리고 ‘의’의 오남용에 대한 출발어의 관점은 ‘3. 영어 출발어 텍스트 관점: ‘의’의 오남용 원인과 해결책’ 참조). 하기에 제시되는 내용은 이러한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된 이론 틀은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이론에서 차용한 ‘확장(expansion)’ 개념과 ‘문법 은유(grammatical metaphor)’이다. SFL은 체계-기능 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 SFG)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서 발전한 여러 기능주의 언어학 이론의 한 갈래로서 할레데이(Michael Alexander Kirkwood Halliday, 1925~2018)에 의해 1960년대 초 주창되었다. 이후 할레데이 자신과 그의 이론을 따르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및 호주의 많은 원주민 언어들에 대한 문법 연구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하였고, 특히 담화분석 연구, 언어 습득 및 언어 교육, 코퍼스 언어학 등에도 활발하게 적용되며 현대 언어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²⁾ 본고에서 차용된 ‘확장’이라는 의미적 개념과 ‘문법 은유’라는 이론적 틀은 기본적으로는 SFL의 전체적인 이론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본고의 연구 목적을 위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적용만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2.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 관점: 격조사 ‘의’의 쓰임

영한 일반 번역 교육 시 격조사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이론적인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다룰 문제는 ‘의’를 지칭할 때 어떤 문법적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 문제는 ‘의’에 선행하는 문법 단위와 후행하는 문법 단위가 맺고 있는 다양한 의미적 관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의’의 생략에 대한 것이다.

2) 체계-기능주의 언어학을 비롯해서 여러 기능주의 언어학의 입문에 도움이 되는 연구서로는 Smirnova & Mortelmans (2010, 최지영 역 2015)와 Butler (2003) 참조

2.1 '의'의 문법적 명칭

본고에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를 격조사의 하나로 인정한다. '격(case)'은 본래 문장 성분이 서술어와 갖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법 범주인데, 예를 들어 국어에서 '이/가'와 '을/를'은 선행하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갖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각각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에 선행하는 표현 A(일반적으로 명사로 실현)는 그 문장의 서술어와 직접적으로 문법적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의'에 후행하는 표현 B(일반적으로 명사로 실현)와 관련을 맺는데, 그 결과 명사구 'A의 B'가 구성되며 확장 of의 잠재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의'를 격조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의미적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김광해 1981, 김명희 1987, 임홍빈 1981, 홍용철 2013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어학계에서는 '의'를 독립적인 격조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추세가 강하고, 전통 문법의 토대에서 구축된 학교 문법에서도 학생들에게 '의'를 격조사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으며, 국어학 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온 이론 문법인 변형생성문법의 많은 연구자들도 '의'를 '구조격'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등(박소영 2014 참조), 여러 가지 연구와 교육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의'는 격조사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법 개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익숙함'은 통번역 교육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원활하게 돕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의'를 격조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격조사라면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주격이나 목적격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의'는 그러면 무슨 종류의 격조사라고 해야 할까? 기존의 국어학 연구에서는 소유격, 속격, 관형격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소유격'이라는 용어는 '의'를 선행하는 두 말이 소유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나온 용어로서 '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를 선행하는 두 말의 의미적 관계는 '소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실 매우 다양하다. 이 점은 대략 '의'에 해당하는 영어의 'of'의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며 논의된 바 있는데(윤재학 2009 참조), 국어의 '의'의 연구에서도

일찍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로서 서정수(1996: 573)는 ‘의’의 다양한 의미(정확하게 말하면 ‘의’를 선행하는 두 말의 의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소유: 동생의 모자, ②소행: 여자의 말, ③소작: 학생의 글, ④소위: 어머니의 말, ⑤소재: 한강의 다리, ⑥소속: 집의 강아지, ⑦소관: 가을의 노래, ⑧소기: 한강의 기적, ⑨소산: 강원도의 감자, ⑩유사: 동물의 사랑(동물적 사랑), ...

또한 ‘의’에 선행하는 두 말 A와 B가 단일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나 혹은 절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예. 자유로부터의 도피, 지금 당장 어찌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누나의 가방과 신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를 ‘소유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연구 과정이 필요하며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단지 문제 제기만으로 그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의’를 ‘격조사’로 총칭할 것이며 ‘의’를 매개로 형성된 명사구를 ‘A의 B’ 구성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2 A와 B의 의미 관계 유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A의 B’ 구성에서 A와 B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에서 밝혀진 의미 관계의 종류는 아직도 실제 자료에서 발견되는 종류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밝혀진 종류도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다루기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한정시켜 ‘A의 B’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A의 B’ 구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자료에서 수집한 ‘A의 B’ 구성을 토대로 A와 B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될 수 있는 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구성의 본질적인 특징 및 ‘의’가 수행하는 기능과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A와 B의 단순한 의미적 관계를 따져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

적 구분은 종종 논자에 따라 판단이 주관적으로 달라지는 애매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의 B’ 구성이 대부분 문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의 유형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문법적 근거를 더하여 유형 구분에 좀 더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때 발견되는 유형들을 일관성 있게 분류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Halliday & Matthiessen (2014)이 문법단위의 복합(complex) 유형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확장(expansion)’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을 차용하였다³⁾. ‘확장’은 다시 ‘부연(elaboration)’과, ‘확대(extension)’, ‘증강(enhancement)’이라는 세 하위 부류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분류 방법의 적용은 A와 B의 의미 관계 유형을 단순히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관된 개념 아래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하기의 표1 ‘A의 B’ 구성에서 두 명사(구)의 의미적 관계 유형 참조).

부연 유형에서는 A가 ‘명세화’를 통해 B를 부연하며 설명하는데, 이 유형은 한국어에서는 다시 ‘관계성’과 ‘사건성’의 두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관계성 유형

B가 A에 의해 구체적으로 열거·예시되거나 설명되거나 동일시되거나 상징·비유된다. 이는 곧 A와 B가 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며(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동일체를 표현), 전형적 유형의 경우 ‘이다’나 ‘보여주다’, ‘상징하다’ 등의 특정 동사들을 통해 관계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예. ‘영양소와 산소 등의 물질’: 그 물질은 영양소와 산소 등이다).

(2) 사건성 유형

A와 B는 ‘주체-대상’(혹은 드문 경우 ‘대상-주체’), 혹은 ‘주체/대상-행위’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건성 의미를 형성한다. 전자에서는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하여(예. ‘꽃들의 잔치’: 꽃들이 잔치를 벌이다), 후자에서는 B의 ‘행위’를 나타내

3) Halliday & Matthiessen (2014)에서 문법단위의 복합 유형은 의미론적으로 크게 ‘확장(expansion)’과 ‘투사(projection)’로 구분되지만 ‘A의 B’ 구성에서는 ‘투사’ 유형이 보이지 않으므로 ‘확장’의 개념만을 적용하여 A와 B의 의미 관계 유형을 구분하였다.

는 이른바 서술적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예. ‘배우들의 연기’: 배우들이 연기하다, ‘내용의 첨가’: 내용이/을 첨가되다/하다).

확대 유형에서는 A의 의미가 B에 의해 확대되는데, 이 경우 A와 B의 의미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미를 근간으로 ‘소유 관계’, ‘실체-국면’, ‘전체-부분’, ‘친족/인간 관계’ 등을 나타낸다. 이 유형은 ‘A의 B’ 구성의 전형적 의미 관계로 간주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온 분야이다. 문법적으로는 주로 ‘A는 B가 있다(혹은 다양한 형용사)’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 (1) 소유주-대상(예. ‘철수의 신발’: 철수는 신발이 있다)
- (2) 실체-국면(예. ‘디램의 성능’: 디램은 (~한) 성능이 있다)
- (3) 전체-부분(예. ‘누에의 입’: 누에는 입이 있다)
- (4) 친족/인간 관계(예. ‘친구의 비서’: 친구는 비서가 있다)

증강 유형에서는 A가 다양한 상황적 의미를 통해 B의 의미를 증강하는데, A의 다양한 상황적 의미에 따라 공간과 시간, 수량, 기타 상황(원인, 비교, 수단, 정도, 자격 등)의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독립적 문장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A가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로 실현되거나(예.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혹은 종종 ‘의’가 상황을 나타내는 관형적 표현(예. ~로 인한, ~에 대한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 (1) 공간 : A가 주로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실현되며 다양한 공간적 요소로 해석된다(‘제주의 딸’(소산)).
- (2) 시간 : A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실현된다(‘오늘날의 김치’).
- (3) 수량 : A가 주로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실현된다(‘대부분의 사람들’).
- (4) 기타 : A가 여러 가지 상황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사랑의 아픔’: 원인 → 사랑으로 인한 아픔).

‘부연’, ‘확대’, ‘증강’의 개념에 따른 분류 및 예시 표는 아래와 같다.4)

〈표 1〉 ‘A의 B’ 구성에서 A와 B의 의미적 관계 유형

유형		예
부연	관계성	-예시: 영양소와 산소 등의 물질, ‘섞박지’ 유형의 김치, 이러한 형태의 문학
		-명사: 동물의 세계, 외래화의 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축약형의 증거,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 휴지 외의 쓰레기, 우즈가 컷 통과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징·비유: 사랑의 미로, 승리의 여신, 평화의 종소리, 야망의 계절, 자유의 투사, 사랑의 학교
		-특징: 불의의 일격, 대역의 죄,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튜립의 나라, 동물의 사랑
	사건성	-주체·대상: 조성자 작가의 동화, 청춘의 글, 꽃들의 잔치, 박지원의 열하일기 -주체/대상·행위: 배우들의 연기, 물레의 회전, 내용의 첨가
확대	소유 관계	철수의 신발, 부부의 새 집, 주인의 자전거(자전거의 주인), 그 여자의 고양이, 네티즌의 메일함, 남자의 빨간 턱수염
	실체-국면	필자의 개성, 수족구의 병원체, 조류독감의 바이러스, 혈액의 성분, 디램의 성능, 아이의 상태
	전체-부분	누에의 입, 읽는 사람의 얼굴, 현관의 문고리
	친족 관계	나의 동생, 홍현주의 부인, 동생의 친구, 친구의 비서
증강	A=시간	오늘날의 ‘김치’, 신라와 고려시대의 숯불사조, 1600년대 말엽의 요리서, 내일의 날씨, 과거의 교육, 이전달의 수치, 순간의 기쁨, 미래의 김치, 앞으로의 활동 계획
	A=공간	-장소/소재: 선상의 승객들, 교회 너머의 집, 이 책의 주인공, 서울에서의 삶 -소산: 강원도의 감자, 개성지방의 보쌈김치 -소속: 애플의 스티브 잡스, ○○○ 대학교의 아무개 -분야: 투자의 귀재, 바둑의 일인자, 역전의 명수 -방향(도달): 성공의 길, 남쪽으로의 진군 -방향(이탈): 자유로부터의 도피, 미국으로부터의 소식 -기준: 우리나라의 최남단, 그 가게의 오른편, 집안의 중심

4) 본 분류는 뉴스 텍스트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분류한 것으로 문학 텍스트나 전문 번역 텍스트 등 다른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A=수량	한 권의 책, 대부분의 언어, 약간의 중첩성, 같은 수의 어휘
A=기타 상황	-동반(와/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유(로 인한): 기술개발의 격차, 사랑의 아픔 -비교(보다, 에서, 와/과): 현재 수준의 10%, 경쟁사와의 격차 -수단/도구(로): 각고의 노력, 마음의 산책, 돌로의 공격 -정도(만큼, 정도): 노력만큼의 보수 -역할(로서): 대한민국 학생으로서의 임무 -조건(경우): 화재시의 행동 -시각/관점(에서 보면): 넓은 의미의 소유관계 -주제(에 대한): 노년기의 문제

2.3 '의'의 생략

앞에서와 같이 '의'를 선행행하는 두 말의 의미적 관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일관된 개념적인 틀로 체계적으로 그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의미적 관계의 존재와 관련해서 번역교실에서 '의'의 오남용 상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의 분류 내용을, 앞서 예로 든 오남용 사례에 적용해보면 어느 것이나 특정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과거의 교육의 초점은 학습능력의 저하 방지에 있었지만... [과거의 교육 → 증강: 시간], [교육의 초점 → 확대: 실체-국면], [능력의 저하 → 부연: 사건성]

이와 같은 분석은 '의'를 선행행하는 두 말의 의미 관계가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때문에 해당 문구(곧 'A의 B')만을 국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관적으로 별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초심 학습자들의 경우 '의'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와 B가 의미적으로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국어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일본어의 'の'와는 달리) 같은 명사구 내에서 '의'의 중첩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특히 텍스트 전체의 내용적 흐름 속에서 앞뒤 문맥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 번역(혹은 글쓰기)의 과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인데, 문법적 이론과 실제적 적용에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요컨대 실제 적용에서는 '의'

의 중첩은 되도록 피해야 하고 ‘의’가 중첩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의’의 생략이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문체를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위의 번역 예는 아래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 과거 교육의 초점은 학습능력 저하 방지에 있었지만...

이와 같은 수정은 기본적으로 A와 B가 각각 단일 명사로 구성된 ‘A의 B’ 구성에서 ‘의’의 생략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생략은 A와 B 사이의 긴밀도를 높여서 글이 산만해지지 않게 긴장감을 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생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가 없으면 A와 B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예. 평화의 종소리), 수량 표현이 앞에 오는 경우(세 건의 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정 대명사가 앞에 쓰인 경우(예. 그의 모자), ‘A의 B’ 구성에서 그 사이에 다른 수식어가 첨가될 경우(예. 소년의 새 아버지) 등이다(김기혁 1990: 71, 김선효 2011: 125 등 참조).

3. 영어 출발어 텍스트 관점: 문법은유의 역할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 관점에서 살펴본 격조사 ‘의’의 사용법 학습 이외에, 영한 일반 번역 수업에서 격조사 ‘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출발어 텍스트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발어 텍스트 관점에서는 출발어 텍스트 간섭 현상과 문법 은유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발어 텍스트 간섭 현상은 번역학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고, 문법 은유는 출발어 텍스트 간섭 현상 중 격조사 ‘의’

5) 반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한국 고유어일 경우의 양상은 좀 다른데, 이때 ‘의’의 선택은 수의적이다(예. 두 줄기(의) 선로, 한 송이(의) 국화꽃).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어에서는 수량 표현이 그 대상인 명사 중심어에 후행하는 형태가 선호된다(예. 선로 두 줄기, 국화꽃 한 송이, 사고 세 건, 사람들 대부분).

와 관련하여 번역 교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부 현상을 문법적으로 상세히 분석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적용한 것이다.

3.1 출발어 텍스트 간섭현상

우선, 출발어 간섭 현상은 번역 시 출발어의 문법 구조가 도착어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번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를 가리킨다(Toury 1995).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두 언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번역에서 이러한 간섭현상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 가독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영한 (일반) 번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주로 ‘번역투’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 출발어 구조의 간섭에 의해 도착어에 이질적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김정우 2003: 42, 2007: 70, 이희재 2009: 134, 이영옥 2012: 152). 특히 영어는 “명사화가 강한 언어”로 알려져 있어(Halliday 1985: 72), 그렇지 않은 언어로의 번역 시 번역투가 나타날 소지가 큰데,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즉 영한 번역 시 영어와 한국어 간 명사화 차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문헌에서 다룬 바 있다(이영옥 2002, 서계인 2004, 이희재 2009, 조원미 2013).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에서도 격조사 ‘의’가 사용된 학생 번역을 분류한 결과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가지 종류의 번역투, 즉 출발어 간섭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영어 출발어 텍스트의 품사를 유지하는 경우

It was crucial there were effective educational campaigns to ensure caregivers had a very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the changes.⁶⁾
 효과적인 교육 캠페인으로 양육자들에게 변경된 권고 내용의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출발어 텍스트의 명사형 유지]

6) 원문 출처: <http://www.smh.com.au/national/health/drugs-regulator-warns-cough-cold-medicines-may-harm-young-children-20120815-2494s.html>

(2) 생략 가능한 성분을 추가한 경우

what if [...] solar companies put solar panels on your roof free⁷⁾
태양열 에너지 회사들이 전지판을 여러분의 지붕에 무료로 설치해준다
면... ['여러분의 지붕에'에서 '여러분의' 불필요]

(3) 명사구 앞에 수식해주는 명사구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숫자 포함)

... two other huge, frozen reservoirs, mountain glaciers and polar ice caps
...8)
... 두 개의 다른 거대한 얼어붙은 저수지인 산악 빙하와 극지방 만년설
... [수식어가 다섯 개임]

(4)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주제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

The shores of Botany Bay offers a snapshot of Australia's two speed economy.⁹⁾
보타니만 해안가는 호주의 이단 변속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호황을
구가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격차가 뚜렷한 호주 경제의 단면'
또는 '주요 산업의 호불황 격차가 심한 호주 경제의 단면'으로 수정 가능]

(5) 연어가 맞지 않는 단어가 같이 사용된 경우

For [...] workers at A, on Botany Bay's south side, the outlook is not so
promising.¹⁰⁾
보타니만 남단에 위치한 A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노동자들의 전망 -> 노동자들의 앞날]

7) 원문 출처: <http://www.theage.com.au/environment/here-comes-the-sun-power-to-the-people-20130830-2sw4k.html>
8) 원문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post-carbon/post/study-ice-sheets-melting-sea-level-rising-faster-than-previously-thought/2011/03/08/ABjlyOP_blog.html
9) 원문 출처: <https://www.economist.com/asia/2012/08/25/hitched-to-the-china-wagon>
10) 원문 출처: 각주 9)와 동일함.

상기 제시한 다섯 가지 범주는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중 ‘격조사 ‘의’가 포함된 출발어 간섭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범주는 첫 번째 ‘영어 출발어 텍스트의 품사를 유지하는 경우’로 파악되었다(표 2 참조). 이는 전체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5%로 다른 네 가지 범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해당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형 위주로 구성된 영어 문장의 구조를 도착어 텍스트에 전이시킨 출발어 간섭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동사형으로 바꿀 때 가독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the reasons for the changes, 변경된 권고 내용의 이유 -> ‘권고 내용이 변경된 이유’).

〈표 2〉 출발어 간섭현상의 종류

출발어 간섭현상 종류	(1) 영어 출발어 텍스트의 품사를 유지하는 경우	(2) 생략 가능한 성분을 추가한 경우	(3) 명사구 앞에 수식해주는 명사구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숫자 포함)	(4)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주제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	(5) 언어가 맞지 않는 단어가 같이 사용된 경우
건수	21	3	7	3	4
백분율 (%)	55	8	18	8	11

이와 같은 출발어 간섭현상에 따른 영어 출발어 텍스트의 품사 유지, 특히 명사형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의’의 오남용 문제는 ‘문법 은유’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및 해결이 가능한데, 이는 ‘문법 은유’ 개념에서 명사(구)로 전이되는 명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기에서는 이러한 문법 은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본 논문에 사용되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2 문법 은유

문법 은유(grammatical metaphor)는 일반적으로 ‘은유’로 알려진 어휘 은유(lexical metaphor)에서 유추한 개념으로,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에서 발전시켰다. 이를테면 ‘시간은 돈’이라는 어휘 은유를 살펴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어휘를 돈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어휘가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법 은유는 어느 한 문법 구조를 이완하는 상이한 문법 구조가 대체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If you work out daily, you will live longer라고 하는 문장을 문법 구조가 상이한 Daily workout will lead to a longer life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 하나의 절로 바뀌었는데, 이 두 절 you work out daily와 you will live longer가 각각 명사구 daily workout과 a longer life로 대체되었으며, 접속어 if는 동사구인 lead to로 바뀌었다.

상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 은유에서는 단어 대 단어의 대체(예. live(동사) -> life(명사))만이 아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집합체(cluster) 단위로도 대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Halliday 2004: 80) (예. work out daily -> daily workout, live longer -> a longer life). 이러한 집합체는 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명사형으로의 대체가 대표적이지만 (daily workout의 경우 workout, a longer life의 경우 life),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로의 대체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daily(부사) -> daily(형용사))(영어에서의 경우). 이러한 문법 은유의 대체 형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그림 1을 보면 접속사, 동사, 형용사 등에서 명사(각각 4번, 2번, 1번)로의 대체뿐 아니라 접속사에서 형용사(7번), 동사에서 형용사(5번)로의 대체 등 10가지의 다양한 대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문법 은유의 일반적인 형태(Halliday 2004: 76, 그림 3.5 수정됨)

Relator (conjunction) ¹⁾	Circumstance (adverb, prepositional phrase) ²⁾	Process (verb) ³⁾	Quality (adjective) ⁴⁾	Entity (noun) ⁵⁾	Modifier ⁶⁾
11 ¹⁾					
		1 ³⁾			
		2 ³⁾			
		3 ³⁾			
4 ¹⁾					
		5 ³⁾			
		6 ³⁾			
7 ¹⁾					
		8 ³⁾			
9 ¹⁾					
10 ¹⁾					
clause complex ⁷⁾	Clause ⁸⁾	nominal group ⁹⁾			

이러한 문법 은유의 일반적인 형태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오른쪽 칸, 두 번째 줄을 보면 (*a* happened) so (*x* happened)라고 하는 복합절이 있다. 이 복합절은 두 개의 절이 접속사 so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래 칸으로 내려가면서 단문으로 [(*x* happened) as a result of (happening *a*), (happening *x*) resulted from (happening *a*)], 또 단문에서 명사그룹 (The resultant of (happening *x*)..., The result (of happening *a*)...)으로 대체되고 있다(표 3에서 ‘명사그룹 nominal group’이란 본고의 명사구에 해당).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구성성분의 대체는 왼쪽 칸에 숫자(그림 1 참조)로 표시되어 있다(예. 9 process: verb, 7 quality: adjective). 이렇게 위 칸에서 아래 칸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문법 은유화(또는 은유화, metaphorized)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아래 칸에서 위 칸으로의 이동은 비은유화(demetaphorization)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¹¹⁾

〈표 3〉 문법 은유의 일반적인 형태 예(Halliday 2004: 77, 예 1 수정됨)

Relator ‘so’		Example
Relator: conjunction	Clause complex	(<i>a</i> happened) so (<i>x</i> happened)
10 (minor process in circumstance: preposition)	Clause	(<i>x</i> happened) as a result of (happening <i>a</i>)
9 process: verb	Clause	(happening <i>x</i>) resulted from (happening <i>a</i>)
7 quality: adjective	Nominal group	The resultant of (happening <i>x</i>)...
4 entity: noun	Nominal group	The result (of happening <i>a</i>)...

3.3 문법 은유 적용 사례

3.3.1 출발어 문법 은유 -> 도착어 비은유화 1

위에서 설명한 문법 은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격조사 ‘의’의 오남용과

11)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비은유화를 통해 생성된, 보다 구어체에 가까운 형태를 ‘congruent form’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번역 수업에서 나타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예문을 분석해보자.

The new estimate of ice sheet melting outstrips [...] figures offered by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in 2007...¹²⁾

빙상의 녹는 정도에 대한 새로운 추정값은 2007년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가 내놓은 [...] 수치보다 높다.

위의 예에서, 세 개의 명사로 구성된 명사구 ice sheet melting은 ice sheets melt(빙상이 녹는다)로 비은유화(demetaphorize)하여 주어(ice sheets)와 동사(melt)로 구성된 절(clause)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만큼 명사화가 강하지 않은 한국어의 경우 명사화를 푸는 것, 즉 비은유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격조사 ‘의’를 사용하여 ‘빙상의 녹(다)’로 번역하기보다는 명사화를 비은유화하여 절을 만들어 ‘빙상이 녹(다)’로 번역(상기 그림1에서 2번의 역방향)하는 것이 격조사 ‘의’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보다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¹³⁾

3.3.2 출발어 문법 은유 -> 도착어 비은유화 2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법 은유 개념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what the government’s much-awaited response to the report might mean for schools에서 여러 개의 단어가 ‘A’s B’ 구성을 토대로 하나의 명사구(the government’s much-awaited response to the report)를 이루고 있는데, 본 명사구에 대한 학생 번역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 출발어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A의 B’ 구성을 토대로

12) 원문 출처: 각주 8)과 동일함.

13)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기와 같이 명사화를 풀어서 이해한 내용(빙상이 녹(다))을 도착어로 옮길 때에는 다시 문법 은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빙상의 해빙 정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3.4.3 출발어 문법 은유 -> 도착어 문법 은유’ 참조)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the government's much-awaited response to the report...¹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반응이...

하지만 이 번역은 출발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출발어 텍스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번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체가 정부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반응에 당사자인 정부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이전 문단인 첫 문단에서 수상(Prime Minister)이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본 내용 이후에 나오는 문단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그 해 초에 발표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기사가 실린 시기는 8월이다. 즉, 해당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수개월이 걸렸음을 고려해 볼 때 오랫동안 기다린 주체는 정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상기의 예문은 ‘의’의 오남용 문제라기보다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 번역에서 ‘정부의’가 ‘반응’과 함께 연결되어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번역에서 출발어 텍스트 구조대로 ‘정부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반응’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출발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문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문법 은유 개념을 도입하여 비은유화를 사용하면 ‘의’ 오용을 줄이고 번역 오류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상기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the government's much-awaited response에서 형용사 much-awaited(오랫동안 기다려온)를 동사와 부사인 waited much(오랫동안 기다리다)로 비은유화해야 할 것이다(그림 1에서 5번의 역방향). 물론 waited(기다리다)의 주체가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상기와 같이 비은유화를 통해 원문을 이해한 후에도 ‘waited much’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번역 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

14) 원문 출처: <http://www.theage.com.au/opinion/editorial/be-true-to-the-vision-with-education-eform-20120821-24kuj.html>

지 방법은 출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착어에서도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¹⁵⁾ 즉, 출발어 내용을 비은유화하여(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port, which had long been waited (by the public)),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정도로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3.3 출발어 문법 은유 -> 도착어 문법 은유

상기에서는 영어 출발어의 문법 은유를 비은유화하여, 한국어 도착어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본 단락에서는 영어 출발어의 문법 은유를 비은유화하여 이해한 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 도착어에서 다시 은유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상기의 '3.4.1 출발어 문법 은유 -> 도착어 비은유화 1'에서 살펴본 예 'ice sheet melting'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위에서는 명사화를 풀어서 질로 바꾸는 과정만 분석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은유화된 형태인 '빙상의 용해 정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Because the density of the ice sheets differs from the density of surrounding areas, the ice sheets present a distinct gravity signature in Grace's readings.¹⁶⁾

대륙 빙하의 밀도가 주변 지역의 밀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기록에서 뚜렷한 중력의 특징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 중 ...the ice sheets present a distinct gravity signature in Grace's readings에서 in Grace's readings가 학생 번역에서는 '그레이스의 기록에서'로 번역되어 있다. 'Grace'는 인공위성의 이름이고 'readings'는 사전을 찾아보면 '미터기나 기타 측정 도구에 나타나는 수치나 양(A figure or amount shown by a meter or other measuring instrument)'(옥스포드 영영사전)으로 되어 있으나, 격조사 '의'를 사용할 경우 학생이 번역한 '기록'이나 사전에서 제시

15) 또한 기다림의 주체를 본 기사를 읽는 독자라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16) 원문 출처: 각주 8)과 동일함.

하는 ‘수치’는 출발어 텍스트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레이스의 기록/수치에서 (대륙 빙하는) 뚜렷한 중력의 특징을 나타낸다’).

오히려 ‘reading’을 은유화가 된 것으로 보고 비은유화를 하여 동사형 ‘read (읽다, 판독하다)’로 만든 후 이를 다시 은유화하는 방식(‘판독’)을 사용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대륙 빙하의 밀도가 주변의 밀도와 다르기 때문에, (대륙 빙하는) 그레이스 판독 시¹⁷⁾ 뚜렷한 중력의 특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학생 번역에서 원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번역하였으나(Grace’s readings -> ‘그레이스의 기록’)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법 은유 개념을 활용하여 비은유화(동사 ‘판독하다 read’)하였다. 나아가 한국어 번역에서 비은유화한 것을 다시 은유화함(‘판독’)으로써 번역본에 ‘의’를 남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그레이스의 기록에서’ -> ‘그레이스 판독 시’¹⁸⁾).

4. 나가는 말

이상에서는 영한 일반 번역 수업 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인 격조사

17) 혹은 ‘그레이스 판독에 따르면’

18) 예외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영어 출발어 텍스트는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문법 은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하기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세 개의 안김절이 있는데 모두 그대로 번역할 수 있으나, 문법 은유를 적용할 경우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After two decades in which people, capital and goods were moving ever more freely across borders, walls have been going up, albeit ones with gates. Governments increasingly pick and choose whom they trade with, what sort of capital they welcome and how much freedom they allow for doing business abroad.

- 번역문에서 문법 은유를 사용한 경우: ‘각국 정부는 교역대상이나 유입자본의 종류 및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허용하는 재량권의 정도와 관련하여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 번역문에서 문법 은유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국 정부는 누구와 교역을 해야 하는지, 정부에서 반기는 자본의 종류는 무엇인지,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허용할지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의’의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체계기능언어학의 일부 이론을 적용하여 오남용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도착어의 경우, ‘의’의 오용과 관련하여 확장(expansion) 개념을 사용해서 A와 B의 의미관계 유형을 분류해보았고, 출발어에서는 간접 현상과 문법 은유 개념을 통해 격조사 ‘의’의 남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류한 의미관계 유형과 은유화 및 비은유화를 포함하는 문법 은유 개념은 격조사 ‘의’ 사용에 확신이 없거나 기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학부생이나 번역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사 및/또는 학자 간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학생 번역의 ‘의’ 오남용 사례를 제시하는 정성적인 방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향후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인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 오남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정성적 분석 결과와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뉴스 텍스트 이외에도 의료, 법률 등 전문 번역 텍스트나 문학 번역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의미 관계 유형표나 은유화, 비은유화 개념의 사용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로 다른 텍스트 유형을 분석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유의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광혜 (1984) 「‘의’의 연구」, 『문법연구』 5: 161-228.
 김기혁 (1990) 「관형구성의 통어현상과 의미관계」, 『한글』 209: 59-97.
 김명희 (1987) 「‘의’의 의미기능」, 『언어』 12(2): 248-260.
 김선효 (2011) 『한국어 관형어 연구』, 서울: 역락.
 김정우 (2003)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방법 시론」, 『번역학연구』 4(1): 27-49.
 김정우 (2007) 「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진단에서 처방까지」, 『번역학연구』 8(1): 61-82.

- 박소영 (2014) 「한국어 속격 ‘의’의 실현과 DP가설」, 『생성문법 연구』 24: 613-629.
- 서계인 (2004) 『영어 번역의 기술(실전)』, 서울: 도서출판 북라인.
- 서정수 (1994/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재학 (2009) 「번역에서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이론연구: 소유구문 영한번역의 경우」, 『번역학연구』 10(3): 161-192.
- 이영옥 (2013) 「Numericals and Classifiers in Korean and English」, 『번역학연구』 14(3): 111-135.
- 이영옥 (2012) 「The Importance of Vocabulary and Grammar in Translation from English to Korean」, 『번역학연구』 13(3): 137-161.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도서출판 교양인.
- 임홍빈 (1981) 「존재 전제와 속격표지 {의}」, 『언어와 언어학』 7, 한국외국어대 언어연구소.
- 조원미 (2013)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서울: 도서출판 이다새.
- 최정화 (2004) 『통역번역입문』, 서울: 도서출판 신문사.
- 최지영 역 (2015) 『기능문법의 개념과 이론』, 서울: 한국문화사.
- 홍용철 (2013) 「소유격 표지 ‘의’의 분포와 본질」, 『생성문법연구』 23: 321-345.
- Butler, Christopher. S. (2003) *Structure and Function – A Guide to Three Major Structural-Functional Theories: Part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lliday, Michael (1985) *Spoken and Written Language*. Geelong: Deakin University.
- Halliday, Michael (2004) *The Language of Science. Collected Works of M.A.K.*, Vol. 5. Edited by J. J. Webster. London: Continuum.
- Halliday, Michael and Christian Matth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 London/New York: Arnold.
- Smirnova, Elena & Tanja Mortelmans, (2010) *Funktionale Grammatik: Konzepte und Theorien*. Berlin: De Gruyter.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Abstract]

Translating case marker 'eui' in English-Korean general language translation classroom: focusing on news texts

Choi, Gyung Hee · Park, Kyoung-hee
(Pyeongtaek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Translating general language texts into one's mother tongue seems to be perceived by many as one of the easiest modes of translation in a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urriculum. Although there is some truth in the perception, however, attaining excellence in the mode is not without difficulty. In translation from English to Korean, one of the sources of such difficulty is the case marker 'eui'. Positioned between A and B in a nominal group (A eui B), the case marker is often misused and/or abused by beginning students, generating unnatural transl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help the student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ase marker and reduce wrong use of the marker in translation, particularly in news story texts. The theoretical framework used in this paper i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the main data include seven news texts and their translations by seven graduate students. The outcome of the paper is a detailed categorization of A eui B relation types (target text perspective) and a means to lessen misuse/abuse of the case marker in the target language by utilizing the concept of grammatical metaphor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 (source text perspective).

- ▶ Key Words: English-Korean general language translation, case marker 'eui', A eui B,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grammatical metaphor
- ▶ 주제어: 한영 일반 번역, 격조사 '와', A의 B, 체계기능언어학, 문법은유

최경희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조교수

gchoi@ptu.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체계기능언어학, 기독교통번역

박경희

맥쿼리대학교 언어학과 프리랜서 번역가

khgreen63@hanmail.net

관심분야: 국어 통사론, 체계기능언어학, 국어학 연구의 통번역 교육 적용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